

제25대 컴퓨터교육과 학생회
<SoCKET(소켓)>
- 제4회 확대 운영위원회 -

일시: 2023/03/03 오후 11시 05분

회차: 25-04

장소: Zoom 온라인 플랫폼

정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총무/Deep:Running장
서기/약성코드장	문화행사부장	사회부장
선전편집부장/COM_ON장	EGG장	CMD장/COFA장
CE:BA장	1학년 과대표	1학년 부과대표
2학년 과대표	2학년 부과대표	3학년 과대표

총원: 15 출석: 11 결석: 4

■ 보고안건

1. 회장단 보고

2. 집행부 보고

- 1) 문화행사부
- 2) 사회부
- 3) 선전편집부

3. 소모임, 학회 보고

- 1) EGG
- 2) CMD
- 3) CE:BA
- 4) COM_ON
- 5) COFA
- 6) 약성코드
- 7) Deep:Running

■ 논의 안건

1. 집행부 및 소모임 모집

- 1) 소모임
- 2) 집행부

2. 총 MT

- 1) 날짜 및 장소
- 2) 기획 주도 인원

3. 개강파티

4. 개강총회

5. 대면식

6. 손망실 비용 처리 방법

■ 단위별 진행 상황 / 기타 안건

1. 학생회비

2. 확대운영위원회 정기회의 날짜

<오후 11시 05분 개회>

[정학생회장] 11시 3분 됐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정족수 먼저 확인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정족수 확인하기 전에 여러분 원래 오늘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모이려고 했는데, 그런데 조금 바쁜 관계로 저희가 급하게 회의 날짜를 잡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회의까지만 온라인으로 하고 다음에 학교 나올 때 회의만큼은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정족수를 확실하게 좀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혹시 캡을 켜주실 수 있는 분들은 모두 캡을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족수 확인하겠습니다. 정학생회장 출석했구요. 부학생회장님?

[부학생회장] 출석했습니다.

[정학생회장] 총무?

[총무/Deep:Running장] 출석했습니다.

[정학생회장] 서기?

[서기/악성코드장] 출석했습니다.

[정학생회장] 문화행사부장님?

[문화행사부장] 출석했습니다.

[정학생회장] 사회부장님?

[사회부장] 출석했습니다.

[정학생회장] 선전편집부장님?

[선전편집부장/COM_ON장] 출석했습니다.

[정학생회장] EGG장님?

[EGG장] 네.

[정학생회장] CMD장님?

[CMD장/COFA장] 네.

[정학생회장] CE:BA장님 오늘 출석 안 하셨고, 1학년 과대표분도 안 하셨고, 1학년 부과대표도 안 하셨고, 2학년 과대표도 안 오셨네요. 2학년 부과대표도 안 오셨고, 그다음 3학년 과대표님?

[3학년 과대표] 네.

[정학생회장] 네, 그래서 총원 15명 중 출석 10명 결석 5명으로 현재 시각 2023년 3월 3일 오후 11시 5

분 제4차 컴퓨터교육과 확대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소는 온라인 미팅으로 하고요. 화면 공유 한 것 지금 보이시나요?

[사회부장] 예.

[정학생회장] 감사합니다.

■ 보고안건

1. 회장단 보고

[정학생회장] 우선 저희가 회장단 보고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희 회장단은 2월 8일부터 2월 9일까지 새터 LT를 다녀왔고, 그다음 2월 17일 과별 OT를 진행, 이후 2월 19일 입학식 실무단 OT를 다녀왔고, 2월 24일 입학식 실무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월 24일부터 2월 26일까지 사범대 새터 진행을 도왔고 과별 프로그램까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 집행부 보고

[정학생회장] 다음으로는 집행부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선 문화행사부장님 보고하실 거 있나요?

[문화행사부장] 일단 과별 OT에서 레크레이션 진행을 문행부에서 맡아서 진행하였고, 새터에 가서 과별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정학생회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사회부장님 보고해주세요.

[사회부장] 저희는 3회 확대운영위원회 카드 뉴스 제작했습니다.

[정학생회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선전편집부장님 말씀해 주세요.

[선전편집부장/COM_ON장] 저희는 아직까지는 보고할 게 없고, 선전편집부 신입 부원들 들어오면은 이제 과방을 조금 필요한 기구들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정학생회장] 네 알겠습니다.

3. 소모임, 학회 보고

[정학생회장] 다음으로는 소모임 학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EGG장님 보고해주세요.

[EGG장] 저희는 방학 프로젝트 끝내고 이제 신입생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학생회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CMD 보고해주세요.

[CMD장/COFA장] 네 CMD는 방학 프로젝트 끝내고 정규 세션 오프라인으로 시작했습니다.

[정학생회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CE:BA장님 오늘 결석하셨고, 다음으로 COM_ON장님 보고해주세요.

[선전편집부장/COM_ON장] 네 이제 COM_ON도 이제 모집을 해야 되는데 아직 제가 COM_ON에다가 이제 부장 바뀐 거나 여러 가지 얘기를 아직 안 해가지고 이번 주 내로 COM_ON 부원들에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안내 드릴거고, 부원들 뽑게 되면 입시멘토링 위주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정학생회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COFA장님 보고해주세요.

[CMD장/COFA장] 네 COFA는 지금 신 회원 뽑기 위해서 인원 파악 중입니다.

[정학생회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악성코드장님 말씀해 주세요.

[서기/악성코드] 저희는 매주 합주 진행했고, 사범대 새터에서 공연 진행했습니다.

[정학생회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딥러닝?

[총무/Deep:Running장] 네 저희 이번에 새로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인 홍보는 안 했는데 조금씩 홍보하고 있고 아마 개총 시기에 맞춰서 본격적으로 신입회원들 모집할 것 같습니다.

[정학생회장] 네 감사합니다.

■ 논의 안건

1. 집행부 및 소모임 모집

1-1) 소모임

[정학생회장] 다음으로는 논의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논의 안건이 저희가 굉장히 많은데 근데 일단 대부분을 저희 회장단 아니면 집행부장끼리 조금 논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가 결정된 사항들이라서 오늘은 그렇게 오늘 논의 안건이 되게 많지만 시간을 많이 잡아먹지는 않을 거예요.

[정학생회장] 첫 번째로 집행부 및 소모임 모집이 있는데 우선 소모임 모집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소모임은 작년에도 그렇고 소모임별로 이렇게 모집 기간이나 방식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소모임은 모집 기간 같은 게 특정되어있지 않다면, 어떤 소모임은 모집 기간이 있고, 어떤 소모임은 모집 기간이 아예 방학으로 다르게 있고, 그래서 소모임은 각각 이제 소모임별로 기간이나 방식이 다르기때문에 알아서 진행을 하고 홍보를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런 소모임 그래도 홍보 활동 같은 데 있어서 이번 2023년 1학기 때 모집을 진행하시는 소모임장분들은 모두 소모임 포스터 같은 거를 만들어서 작년처럼 과방에 부착하면 소모임 홍보에 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모집 같은 거는 각 소모임에서 알아서 하되 포스터는 과방에 부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어떠신가요?

[EGG장] 좋습니다.

[문화행사부장] 좋습니다.

[정학생회장] 네 오늘 참여 못 하신 다른 소모임장 분들께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포스터 만들고 그다음에 소모임 모집은 알아서 하라고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모임 마지막으로 얘기하자면 소모임 오늘 여기서 확운에서 얘기를 했고 이제 내일부터 바로 본인 소모임에 이제 새내기나 아니면 재학생 모집을 실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자유롭게 알아서 해주시면 되고요.

1-2) 집행부

[정학생회장] 다음은 집행부 부원 모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단에서 전체적으로 전체 모집 공고를 공지방이랑 이제 인스타 계정에 올릴 건데 모집이나 혹은 지원이 종료되면 이름과 학번을 가린 채로 집행부장들에게 전달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름과 학번을 가린 채로 우선 어떤 스펙이라든가 아니면은 본인이 이런 부서에 들어가서 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각 집행부장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면 이제 집행부장분들이 뽑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인원이 혹시나 어느 특정한 부서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 부서에 몰렸을 때 이제 남은 인원들을 다른 부서들로 배치를 좀 반강제적으로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혹시 이런 방식도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더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세요.

[총무/Deep:Running장] 저 마지막에 반강제적으로 옮긴다기보다는 아마 저희 때도 집행부 뽑을 때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애초에 받을 때 1지망 2지망 이런 식으로 받아서 1지망이 다 찼으면 2지망으로 넘겨서 그 학우분을 다른 집행부에 넣는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학생회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은 또 없으신가요?

2. 총 MT

2-1) 날짜 및 장소

[정학생회장] 네, 없다면 이제 다음 논의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총 MT에 관련한 안건인데요. 저희 회장단에서 우선 총 MT 얘기가 나오고 저희도 전달받은 건데 아마 코로나 이전까지는 총 MT가 3월 아니면 4월쯤으로 조금 학기 초반이었던 걸로 저희가 전달을 받았어요. 혹시 여기서 코로나 이전 학번 분이 구재우 선배님 계신데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EGG장] 3월 말이나 4월 초였던 것 같아요. 4월 초였던 것 같아요.

[정학생회장] 그때쯤으로 이제 원래 총 MT가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저희가 총 MT를 갔을 때는 코로나 때문에 일부러 2학기쯤으로 좀 미뤄져서 됐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번 학생회의 목표가 코로나 이전으로 모든 걸 조금 되돌리자라는 그런 목표가 있듯이 이번 총 MT도 조금 앞당겨서 이번 학기 초에 실시를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 어떤 확운 단톡방에도 공지된 바가 없고 저희 학생회끼리 진행하기에도 너무 좀 급한 감이 있어서 3월 말이나 4월 초에는 하기 조금 힘들 것 같고, 4월에 중간고사가 끝나고 그 뒤로 중간고사 끝나는 주의 주말로 총 MT를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이런 날짜 같은 거에 대해서 더 좋은 의견이 있을까요? 지금 당장 4월 초나 3월 말에 가기에는 너무 급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공지도 제대로 안 됐고, 그래서 중간고사 기간쯤으로 하되 대신 중간고사 기간 이후로 잡아버리면은 총 MT를 기획하는 그런 기획단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 공부도 해야되는데 기획도 해야 하고 그런 좀 고생을 덜기 위해서, 조금 준비를 더 일찍 하고 그다음에 출발만 하면 될 정도로 준비

를 하고 중간고사 공부를 하고, 다음으로 총 MT를 가는 그런 방식으로 현재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11시 16분 지금 한 분 더 참여해 주셔서 정족수 11명으로 정정하겠습니다.

혹시 좋은 의견 있으실까요? 혹시 총 MT 이번 1학기 때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을까요? 혹시 조금 2학기 때 가는 게 더 낫다 1학기보다는 아니면 방학 때 차라리 가는 게 낫다. 이런 거 제가 다른 과 학생 회장분들께도 여쭙봤는데 대부분 방학 이제 끝나고 2학기 개강 직전이나 직후쯤으로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저희 과만 지금 1학기 때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다른 과랑 같이 맞춰가려면 그때쯤으로 해도 괜찮아요.

[사회부장] 1학기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학생회장] 저희가 예정한 대로 중간고사 끝나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부장] 네 기말고사 전후로는 시간이 타이트할 것 같아서요.

[정학생회장] 네 알겠습니다.

[사회부장] 아니면 혹시 그 MT가 사범대 학생회나 총학생회가 허락을 해줘야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정학생회장] 아니요. 총 MT는 저희 과별로 진행하는 사안이라서 간단하게 보고만 하고 간다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회부장] 그럼 중간 전에 가는 것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정학생회장] 중간 전후로 하지 않은 이유가 중간고사에 대한 조금 학생들의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일부러 중간 이후로 잡았는데, 네 구재우 학우님 말씀해주세요.

[EGG장] 저희 때도 그런 거 다 걱정이 있었는데 그냥 갔거든요. 이게 약간 너무 큰 행사라서 빨리 친해지면 좋으니까 좀 다 같이 하는 행사인데 저희도 약간 시험 좀 부담이 있었지만 그래도 4월 초에 갔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장소 준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정학생회장] 장소는 거의 확정 쪽으로 지어놓긴 했어요. 장소는 일단 어느 정도로 봐냈고 그런데 준비 과정이랑 이런 홍보 과정에서 조금 제가 너무 급하게 준비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더 철저하고 준비성 있게 포인트를 가기 위해서 조금 기간을 늘렸습니다.

[3학년 과대표] 네 혹시 저 발언해도 되나요?

[정학생회장] 네네.

[3학년 과대표] 제 생각에도 그냥 갈 거면 빨리 중간고사 전에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저희가 중간고사가 8주 차 정도에 원래 예정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컴교 특성상 교수님들중에 중간고사를 늦게 치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은 참여 인원도 적어질 것 같고 그렇다고 MT 가는 날을 더 미루면 5월에 대동제랑 또 시기가 겹쳐서 조금 루즈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갈 거면 조금 타이트하더라도 열심히 준비해서 빨리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정학생회장] 8주차가 시험인 거면 4월 16일쯤 그 주가 맞나요?

[3학년 과대표] 그 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학생회장] 그러면 4월 초라고 하면 4월 1~2일 아니면은 8~9일 정도가 되겠네요.

[3학년 과대표] 혹시 4월 초가 왜 나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가게 된다면 4월 초로 가신다는 말씀일까요?

[정학생회장] 그러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중간고사보다 더 일찍 가는데 그렇다고 3월 말에 가기에는 저희가 조금 어수선한 게 있어서 그래서 한다면 4월 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학생회장] 혹시 질문하실 의도가 어떤 건지 여쭙봐도 될까요?

[3학년 과대표] 3월 초가 4월 초가 좀 부적절하다 이런 뜻은 아니었고, 갑자기 4월 8일을 말씀하시길래 그냥 궁금했습니다.

[정학생회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중간고사 기간이랑 조금은 겹치더라도 차라리 조금 일찍 가겠다는 그런 의견에 좀 동의하시나요?

[문화행사부장] 저는 4월 1~2일 그때가 제일 적당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간고사랑도 안 겹치고 그렇게까지 막 급한 느낌은 아니라서 그 주가 가장 적당할 것 같아요.

[정학생회장] 네 저도 4월 초 다시 생각해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4월 1~2일 저도 괜찮아 보이네요. 혹시 다른 분들도 의견이 있을까요?

[선전편집부장/COM_ON장] 혹시 만약에 아까 전에 4월 초 중간고사 전으로 했을 때 약간 타이트하고 뭔가 준비하는 게 조금 빠세질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약간 망설이셨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회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들 것 같더라는 생각을 하신 건가요?

[정학생회장] 일단 숙소 잡는 거가 가장 좀 변수가 많을 것 같아서 일단 숙소 잡는 거랑 그리고 어느 업체랑 또 얘기해서 여러 가지 안주나 이런 것도 사야되고 또 저희 총 MT니까 저희 재학생이나 새내기들한테 홍보하기는 쉽겠지만 교수님들한테 연락 돌리거나 아니면은 졸업생분들까지 연락 돌리는 걸 생각하면 조금 3월 말이나 4월 초에 하면 저는 조금 갑작스러운 일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다시 보니까 그렇게 급하게 하는 것 같진 않아요.

[EGG장] 그래서 시간이 충분한 것 같은데 한 달 정도면 사실 기간이 많은 것 같아요.

[정학생회장] 네 저도 급하지는 않은 것 같네요. 다들 4월 1~2일쯤으로 하는 거에 동의하시나요?

[문화행사부장] 네.

[선전편집부장/COM_ON장] 네 동의합니다.

[사회부장] 네.

2-2) 기획 주도 인원

[정학생회장] 네 그러면 모두 동의하셨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총 MT는 일단 4월 1~2일로 거의 확정을 짓도록 할게요. 그리고 총 MT 이번에 날짜랑 장소까지 조금 확정이 되면 그때 바로 공지를 할 예정이고, 이제 주도 인원을 지정해 봐야되는데 저희 회장단에서 나온 얘기는 그 회장단과 집행부장분들 아니면 집행부원들까지 그리고 조금 더 필요하다면 이제 각 학년의 과대분들까지 해서 저희가 총 MT를 좀 주도적으로 기획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저희가 일단 집행부장분들은 저희 학생회 그래도 일을 조금 하셔야 하는 분들이라서 일을 돕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다음 과대분들은 이제 각 학년들을 챙겨야 하는 입장에서 좀 더 MT에 대해 더 잘 알고 MT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애들을 챙겨줘야 할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이런 기획 과정에 참여를 해야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집행부장 회장단 그리고 과대를 주도로 기획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혹시 어떤가요?

[사회부장] 좋아요.

[문화행사부장] 동의합니다.

[정학생회장] 혹시 소모임장분들도 참여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정학생회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 MT는 우선 기간은 4월 1~2일로 장소는 아직 미정이지만 아마 가평 중에 한 펜션으로 갈 것 같아요. 넓은 펜션을 잡을 거고, 주도 인원은 이제 집행부장 회장단 그리고 각 과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개강파티

[정학생회장] 총 MT 안건은 끝났고 다음으로는 개강 파티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고 싶은데 개강 파티를 저희 작년에도 그렇고 개강 파티를 학생회보다는 과대분들이 조금 학년들을 다 좀 복돋아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어서 여기 1학년 과대분이 안 계셔서 1~2학년 과대분들이 안 계셔서 제가 다시 그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학년별 과대분들께서 개강 파티를 만약에 본인 학년이 원하신다면 조금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개강총회

[정학생회장] 다음으로는 개강총회가 있습니다. 개강총회 일단 새내기들이 가장 많이 참석해야 하는 행사 중에 하나로 이제 제가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1학년들이 학교 오는 시간이 이제 직권 배정 과목이 화요일 목요일로 고정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이제 그 이후 시간인 화요일 6시 아니면 목요일 6시쯤으로 개강총회를 실시할 생각입니다. 날짜는 이제부터 2주 뒤인 3월 14일이나 혹은 16일 화요일 아닌 목요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혹시 또 질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또 있다면 이번 개강 총회는 이제 코로나도 끝난 김에 사범대학 학생회에서 이런 요구가 좀 왔어요. 개강총회는 원래 오프라인으로만 진행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작년 개강총회 때 이제 온-오프 혼합으로 하는 거는 정족수 확인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고 원래 개강총회의 본질을 조금 무너뜨리는 것 같다해서, 올해부터는 개강총회를 아예 오프라인으로만 진행해달라고 요청사항이 와서 그래서 이번에는 줌이나 이런 거로 온라인으로 송출하지 않고 오로지 오프라인으로만 일단 진행해볼 예정입니다. 질의 사항 있으실까요?

[선전편집부장/COM_ON장] 혹시 개강총회 장소는 작년 개강총회랑 똑같은 장소로 그대로 진행하나요?

[정학생회장] 아니에요. 똑같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일반 강의실보다는 좀 더 세미나실 같고 더 네 그런 느낌의 강의실로 저희가 잡을 예정입니다.

[정학생회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 대면식

[정학생회장] 다섯 번째 안건으로 대면식입니다. 대면식은 저희가 개총 이후로 혹은 이전에 대면식을 진행할 것인데요. 대면식이 아마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코로나 이전 학번 때는 있었던 행사였다는 걸로 제가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다시 실시해볼까 하는데 이제 1학년과 2학년 대면식 그리고 1학년과 3~4학년 대면식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거에 관련해서 또 저희가 좀 상세한 정보 같은 거를 얻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혹시 한 번 더 구재우 선배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EGG장]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정학생회장] 대면식이 이런 학생들 다 수요를 받고 그다음에 어느 식당에서 같이 모두 한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조별로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EGG장] 사실 하기 나름인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잠시만요. 한번 찾아볼게요.

[정학생회장] 그러면 감사합니다.

[EGG장] 먼저 다른 얘기하고 계시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가지고요.

6. 손망실 비용 처리 방법

[정학생회장] 네 그러면 대면식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 제가 먼저 드렸던 안건지에 없는 내용을 하나 추가를 했는데 여섯 번째 논의 안건 보시면 손망실 비용 처리 방법이라고 나와있어요. 이게 제가 우선 상황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얼마 전에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범대 새내기 새로배움터를 진행을 했잖아요. 그 기간동안에 이제 저희 새내기분들 중 한 분이 이제 술을 마시다가 너무 취해서 이불과 매트리스에 토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매트리스랑 이불을 버리고 새롭게 들어오는 데에 있어서 손망실 비용이 나왔는데 그 비용이 10만 원이라고 합니다. 혼자서 책임지기에는 너무 큰 비용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학생회비를 쓰자기에는 학생들의 반발이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저희 학생회비에서 돈을 어느 정도 대주고 왜냐하면 학생을 책임지지 못한 학생의 잘못도 있다라는 명분으로 학생회비를 대주고 저희가 처리를 할지 아니면은 학생 개인 부담으로 10만 원을 넘길지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문화행사부장]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10만 원이 엄청 큰 금액이긴 하지만 이거를 일단 사전 답사 하느라 학생회가 어디 다녀올 때 드는 비용을 학생회비에서 내는 것만으로도 불만이 표출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걸 학생회비에서 감당한다고 공지를 하면 그거에 분명히 불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 그리고 행어나 학생회비에서 얼마 정도를 지원을 해준다 할지라도 그 지원해주는 금액을 얼마로 잡을지도 되게 애매하고 그 기준도 딱히 없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개인이 부담하는 게 가장 깔끔하다고 생각

을 합니다.

[정학생회장]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또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시기 전에, 저희가 지금 회의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일단 빨리 회의 종료하고 다시 여러분들 초대해드리도록 할게요.

(잠 회의 새로 시작)

[정학생회장] 그럼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다시 손망실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아까 김예린 학우님께서 학생들의 반발이 우려가 되어서 그냥 개인에게 10만원 과실을 모두 부담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혹시 다른 분 의견 있으실까요?

[부학생회장] 생각해 봤는데 이게 친구가 이제 어디 구석탱이에 혼자 숨어가지고 술 마시다가 취해서 토한 것도 아니고 그래도 한 방 안에서 한 조 안에서 술 게임도 하고 술도 마시고 어찌다 보니까 어쨌든 그렇게 된 건데 이게 그 친구 하나만의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말리긴 했을 수도 있지만 마시자 하는 그 분위기를 어쨌든 다 같이 유도를 하기도 했을 거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친구를 케어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저희 컴퓨터교육과 그 새터에 참여했던 아마 저희 전체의 책임도 어떻게 보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금액을 전부 다 부담시키는 건 조금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정학생회장] 네 잘 들었습니다. 저도 노재원 학우님이랑 마찬가지로 이게 사실 금액이 너무 부담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저희 학생회 측에 물론 저희가 아무리 노력했다 해도 그래도 학생회 측의 과실도 있고 그다음에 그 분위기를 잡지 못한 그 조의 환경이나 그런 걸 잡지 못한 저희 측의 과실도 있다고 생각해서 전부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총무/Deep:Running장] 저 여기 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행사하거나 할 때 앞으로 혹시나 이런 기물 파손이라거나 이런 사고들이 생길 수 있는데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이제 문서화시켜놓으면 되지 않을까 일종의 규정을 좀 만들어 놔서 학생회비 몇 프로 개인 몇 프로의 부담금을 지게 한다면 식으로 좀 이렇게 문서화를 해놓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학생회장] 회칙을 새롭게 만들자는 말인가요?

[총무/Deep:Running장] 네 일종의 어떤 제어 장치로서의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물론 이제 회칙을 쓰면 내가 이렇게 해도 내 부담금이 얼마밖에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할 분들은 없을 테니까 다 같이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지 말자라는 느낌에 있어서 회칙을 새롭게 신설하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학생회장] 네 알겠습니다. 근데 회칙을 정하고 처리하기에는 지금 당장 저희가 바로 행동을 해야돼서 회칙은 일단 저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회칙을 저희가 정해서 앞으로의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저희가 이런 대응 과정이 먼저 잡혀 있다면 그거 그대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그거에 관해서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하는 일이라서 혹시 그 건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게 있을까요?

[총무/Deep:Running장] 과실을 저도 노재원 학우님이랑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그 과실 비율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괜찮은 것 같고 만약에 이제 근데 이제 또 저희가 예를 들어서 5대 5로 하기로 했다면 예를 들

어 10만 원이 나와서 5대 5로 할 거다 하면은 그 학우님께 직접 저희가 계좌로 받아서 10만 원으로 만들어서 거기다 또 보낼 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런 것도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학생회장] 그거는 제가 사범대 학생회에 말씀드려서 사범대 계좌를 과실을 하신 학생분께 전달해 드리고 그 남은 금액을 저희가 또 그 학생회 계좌로 보내는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총무/Deep:Running장] 네 그래서 저는 과실 비율을 정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5대 5가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행사부장]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어쨌든 지금 선례가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누군가 또 똑같은 일을 한다면 또 똑같이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은 만약에 이렇게 비율로 5 대 5 이렇게 정해놓는다면은 지금은 단순히 이불이고 10만 원이니까 5대 5 해서 5만 원만 책임지면 되는 건데 행여나 그 금액이 더 커지게 되면은 그렇게 비율로 정해놓게 되면은 저희가 부담하는 게 더 커질 위험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최대 금액을 정해놓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 일을 처리할 때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일도 똑같은 일을 해도 똑같이 다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이 일을 처리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정학생회장] 그럼 금액에 비례해서 과실 비율을 정하되 최대 금액을 지정하자는 말이죠.

[문화행사부장] 네 맞습니다.

[정학생회장] 혹시 어느 정도가 괜찮을까요? 5만 원 정도?

[선전편집부장/COM_ON장] 저기 혹시 의견 하나만 말씀드려도 혹시 괜찮을지?

[정학생회장] 네 괜찮습니다.

[선전편집부장/COM_ON장] 이게 굉장히 급한 사안이고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급한데 이제 사실 좀 논의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그냥 방금 제가 생각한 건데 혹시 만약에 학생회비를 약간 유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학생회비를 일단 급한 10만 원을 일단 먼저 보증 느낌으로 일단 먼저 해서 급한 불을 일단 끈 다음에 이제 이 손실된 10만 원을 이제 어떻게 처리할지를 이제 다시 이미 이제 손실은 일단 처리를 일단 급한 분은 꺾으니까 이제 먼저 일단 그걸로 내고 이제 그 손실된 10만 원을 어떻게 다시 얘기할지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잘하면은 늘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학생회비가 얼마나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일단 의견으로 일단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총무/Deep:Running장] 이거는 제가 총무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저희가 10만원 보내고 그러면 만약 그래서 이런 회의를 해봤을 때 5만원 정도 입금하면 됐습니다. 했을 때 그 5만 원을 이제 개인 계좌로 한 학생에게 입금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런 형태는 조금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개인과 개인 간의 학생회비로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저희가 또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학생회비를 10만 원 정도를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어떤 경우에서라도 10만 원을 저희가 학생회비로 내는데 예를 들어 실수로 TV를 꺾다. 그래서 100만 원짜리 어떤 과실이 생겼다고 했을 때 저는 저희 학과에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10만 원은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개인이 낸 돈이 10만 원이니까 그거보다 커지면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이 낸 저희가 학생이 여기를 보험의 개념으로 사용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100만 원

짜리 물건을 깨는데 나는 학생회라는 보함을 들었다라는 이런 느낌으로 적용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선은 학생회비를 냈다는 그 학우분이 학생회비를 냈다는 가정 하에서 5만 원 정도 선이 적당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지금은 이불이어서 괜찮지만 아까 김예린 학우님께서도 말씀을 드린 것 같기는 한데 좀 금액이 커진다면은 이제 이게 단순히 그런 금액적인 문제가 아니라 대문 이제 이런 거 손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법적으로도 처리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도의 만약에 좀 심각하게 논의가 될 정도의 사안이면은, 그래서 그건 대물 쪽으로 넘어가서 개인과 어떤 보험 진짜로 업체가 있는 보험 간의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희는 한 5만 원 정도 선을 생각하고 그 이상의 어떤 금액적인 면에 대해서는 아예 개인적으로 처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전편집부장/COM_ON장] 감사합니다.

[정학생회장] 그럼 일단 구래건 학우님도 결국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5만 원 정도를 지원하자라는 의견이 신가요?

[총무/Deep:Running장] 저는 그게 좀 5만 원 정도 지원하면 이제 그 학우분께서도 지원하는 부담하는 금액이 5만 원 정도니까 일종의 경각심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학생회장] 혹시 그럼 다들 이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아예 학생분이 전부를 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으면 아니면 조금 과실 비율을 다르게 잡자라는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이게 제 학생회비가 걸리는 거라 결국 민감한 상황이라서 모두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오히려 더 도움이 되니까 망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채팅으로 제가 투표를 할 텐데, 네 다른 의견 일단 조금 더 받겠습니다. 없으면 바로 투표로 넘어갈게요.

[3학년 과대표] 학생회가 지원해줘야 하는 과실 비율을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5대 5는 물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회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는 것에 동의를 하지만 그렇다고 5대 5는 조금 과한 비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10만 원이어서 저희가 5만 원만 부담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크게 다가오지 않는 것 같은데 금액이 조금만 올라가도 20만 원이 돼도 결국에 5대5를 하게 되면 저희가 10만 원을 지원해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아요. 이랬을 경우에는 상당히 학생회가 부담하는 비율이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찌 됐든 이거는 개인의 과실로 인한 손망실 비용이 발생한 거니까 개인에게 좀 더 비중을 뒹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적절한 비율은 7대 3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학생회장] 네 저도 그 전에 동의하는 게 5대 5를 했을 때 아무래도 금액이 커지면은 저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너무 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최댓값을 지정했다고 해도 그 값이 너무 그 값까지 안 가더라도 그래도 저희가 저희 자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커져버리면 저희 활동 자체도 조금 제한이 걸리고 저희 학생회비를 아무래도 다른 학우분들께서도 내신 건데 그거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학우분들에게 불쾌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7대 3 정도에 찬성을 하고 대신 어떤 조건을 거는 게 7 대 3에서 최대 5대 5까지를 저희끼리 합의를 봐서 학생회 측에서 과실이 조금 컸다 하면은 최대 5대 5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건을 거는 식으로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래건 학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저희가 학생회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지정하는 것도 옳다고 생각하고, 한 학생당 10만 원 정도가 이제 학생회비인데 그의 절반인 5만원까지 저는 최대 금액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제 의견은 그러합니다.

[총무/Deep:Running장] 근데 저 이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대비해서 지금 논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일이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교육과 전체가 관여된 일을 얘기하시는 게 맞

을까요? 그러니까 새터 MT 이렇게 혹시 그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막 과끼리 모여서 노는 거에는 이제 전혀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것도 정확히 명시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학생회장] 저희 학생회 활동에 있어서 어떤 과실이 나오면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얘기를 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무/Deep:Running장] 네 그걸 약간 학년 단위보다는 어떤 과 단위의 활동에서 한다고 하는 거를 만약에 적는다면 저는 명확하게 적어놓은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학생회장] 네 알겠습니다.

[선전편집부장/COM_ON장] 혹시 이제 금액 의견보다는 질문인데 이제 그럼 만약에 이제 학생회비를 우리가 이제 쓰게 된다면은 결국 어떤 식으로든 이제 학생회비를 컴퓨터교육과의 학우분들 모두한테 어느 정도는 공표가 되는 게 사실상의 이제 원칙이잖아요. 그리고 투명성 있는 재정이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이게 이제 이루어져서 이게 해결이 됐다면 이게 뭔가 따로 공표가 나오는지 아니면 그냥 회계상의 장부로만 기록에 남는 건지 그 이후로 뭔가 공표되는 거는 어떻게 처리되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 그거를 여쭙보고 싶습니다.

[정학생회장] 저희가 저희 학생회 활동할 때 학생회비를 인준받을 때 인준 받은 거 하나하나를 모두 저희가 공지방이나 인스타에다가 공표를 하지는 않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전편집부장/COM_ON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생회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의견이 없으시면 지금까지 나온 의견이 일단 학생 개인이 모든 금액을 부담한다, 아니면 50대 50으로 우리가 5만 원을 부담한다, 아니면 7대 3으로 우리가 3만 원을 부담한다, 이 세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지금 채팅에다가 바로 투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이 학생 개인이 모든 금액을 부담한다, 2번이 5대5로 5만 원 학생 대비 5만 원을 지원한다, 3번이 7 대 3으로 수리비 3만 원을 지원한다, 이 세 가지 경우 중에 한 가지로 여러분이 투표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번호 숫자만 입력해서 번호 하나를 채팅했다가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줌 채팅으로 '손망실 비용 처리 방법'에 대해 투표 받는 중)

[정학생회장] 네 그러면 총 11명 중 1번 1명, 2번 1명, 그리고 3번 9명으로 그러면은 저희가 7 대 3으로 학생회비 3만 원을 학생에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저희가 회칙을 정해서 학생회비를 어느 정도로 개인에게 지원을 할지 비율과 최대 금액을 정해서 회칙을 이제 개강총회 때 저희가 개강총회 직전까지 회칙을 정해서 개강총회 때 인준을 받는 것으로 목표로 하겠습니다.

[총무/Deep:Running장] 저희가 3만 원 지원하면은 학우분께서 7만 원 내야 되잖아요.

[정학생회장] 네

[총무/Deep:Running장] 못 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학생회 과실이 더 큰 것 같다고 주장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정학생회장] 일단 저희끼리 다시 회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사범대 측에 일단 연락을 드리고 아마 사범대 측에서 잘 처리해 주실 거 같긴 해요. 아니면 사범대 측에서 우리에게 어떤 지시가 떨어지면 저희가 그 지시를 따르거나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총무/Deep:Running장] 알겠습니다.

[정학생회장] 혹시 저희가 지원금을 지원하는 게 좀 너무 착한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EGG장] 저 근데 정확한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다 같이 술 먹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그냥 이불에 토를 한 거예요?

[정학생회장] 네 맞아요.

[총무/Deep:Running장] 이거 제가 현장에 좀 잠깐 있었는데 다 같이 이제 술 게임을 하다가 그 친구가 이제 화장실을 왔다갔다했어요. 화장실을 왔다갔다하다가 이제 지나가면서 계속 이렇게 술병을 발로 이렇게 차면서 가길래 너 취한 것 같다 너 방에 들어가서 자라라고 해서 방에 들여보냈고, 한창 한 10분 20분 있다가 인원 점검을 하는데 인원 점검을 할 때 저희 한 명 한 명 어디 있지 방에 있지 하고 방문을 열었는데 이제 막 이불에 토를 해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이었습시다.

[EGG장] 사실 그러면 학생회 측에서는 책임을 다 한 거 아닌가요? 거기 방까지 딱 들여보내준 건데

[문화행사부장] 네 그리고 학생회가 30분에 한 번씩 돌아다니면서 인원 체크도 하고 너무 술 취한 사람 없는지 체크도 하고 약간 제지를 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사실 그냥 학생 구성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을 지는 거지 딱히 저희가 책임이 과도하게 있어서 책임을 진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EGG장] 알겠습니다.

[정학생회장] 혹시 소신 발언 하나만 하자면 사실은 학생 개인이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학생회에서 같이 간 거고 저희 학생회에서 조장 분들을 뽑고 그다음에 그 조장분들이 조원들을 모두 챙기는 그런 방식으로 새터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그런 조장분들이 그리고 우리 회장단이 잘 못 챙긴 책임이 있지 않냐는 그런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그런 시선이 있고 저희도 그런 거를 아무리 저희가 학생 개인이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의 책임감으로라도 일단 저는 학생회비를 지원하자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렇습시다.

[선전편집부장/COM_ON장] 혹시 저도 의견 하나만 말해 해도 될까요? 소신 발언 느낌으로?

[정학생회장] 네네.

[선전편집부장/COM_ON장]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회비 내는 게 학생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이제 만약에 당사자가 나중에 또 했을 때 오히려 다시 생각해 본다면 실수를 해도 어차피 내가 돈을 낼 거니까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학생회비를 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이게 하나의 장치라도 사용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이 본인이 다 내는 게 아니라 결국 학생 전체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아 나의 실수 때문에 결국 학생회비가 차감이 됐으니까 결국 학생 전체한테 지금 피해가 났구나 내가 실수한 게 나만 실수한 게 아니라 모두한테 피해가 갔구나라는 점을 학생들이 이제 차감되는 걸로도 어떠한 이제 어느 정도의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학생회비로 지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개인에 따라 이제 생각들이 다 다르시겠지만 저는 이러한 관점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의견을 드리긴 했습니다.

[정학생회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저희가 그래서 3만원을 지원하는 거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3만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이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는 저희가 좀 더 추후에 회의를 하면서 논의를 하면서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해보도록 진행하겠습니다.

5. 대면식

[정학생회장] 일단 손망실 비용 처리 방법은 일단 이대로 끝났고, 혹시 대면식 방식에 대해서 준비가 되셨을까요?

[EGG장] 네 좀 알아봤는데 테이블별로 좀 섞어가지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비율을 좀 맞춰가지고, 1학년 2학년 대면식이라고 하면 1학년 절반 2학년 절반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2학년을 조금 덜 넣고 1학년을 좀 더 넣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고, 1학년 3학년 4학년은 제가 기억하기론 선배님들이 그렇게 많이 안 오셨던 것 같고 그래서 원래 이렇게 좀 자리 시간 지나면 이렇게 테이블 옮겨 다니고 하는데 1학년 3학년 4학년에서는 딱히 그런 게 없었던 것 같고, 1학년 2학년 대면식에서는 좀 많이 옮겨 다니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정학생회장] 다 같이 같은 식당을 왔을까요?

[EGG장] 다 같이 같은 식당을 갔고, 저희는 1학년 2학년 대면식은 아마 오뎅바 갔었던 것 같고, 2층을 통째로 빌려가지고 1학년 2학년 대면식을 했었어요. 1학년 3학년 4학년 장소는 지금 없어졌는 데여가지고 어쨌든 좀 큰 데 한 군데 빌려가지고 다 같이 했었어요.

[정학생회장]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면식은 우선 개총 이후나 혹은 이전에 날짜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선배들의 목소리 기울여서 어떻게 진행했는지 네 잘 듣고 저희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일단 대면식은 이 정도로만 논의를 하고요.

■ 단위별 진행 상황 및 기타 안건

1. 학생회비

[정학생회장] 다음으로는 기타 안건으로 이제 넘어갈 건데 첫 번째 학생회비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1학년 과대랑 부과대 분 오시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1학년 과대랑 부과대 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의에 참여를 못하셔서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2. 확대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날짜

[정학생회장] 다음으로는 저희 확대운 영위원회 정기회의 날짜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거는 제가 회의 시작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앞으로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해야 하고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 만큼 모두가 비는 시간을 저희가 찾아서 정기 회의 날짜를 정해야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카카오톡으로 웬 투밋 이용해서 저희가 정하면 될 것 같아서 이것도 우선 간단하게 이렇게 언급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기타

안건에 넣어왔습니다. 혹시 이 기타 안건도 끝났는데 지금까지 저희 확대운영위원회 회의하면서 질의사항 있으시거나 아니면 하고 싶은 말 계시면 부담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학생회장] 없으시다면 그럼 이상으로 현재 시각 3월 4일 오전 12시 6분 제4차 컴퓨터교육과 확대운영위원회 회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늦은 지금까지 모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전 12시 06분 폐회>